

국민대통합을 위한 종교계 입장문(안)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민의 화합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국정농단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접하고 절망과 분노의 함성으로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것은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국가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최성규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최성규 목사는 과거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편향적 언행으로 민심의 분열을 야기했던 장본인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종교간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종교인들 스스로가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종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향적 발언으로 국론과 민심의 분열을 조장했던 특정종교의 인사를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의 야기할 뿐 우리사회의 성숙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의 평화와 화합을 기도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촛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하루속히 국정이 정상화 되고 국민대화합을 통한 평화로운 결실이 맺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 일동